

## 영적원리 XVIII. 평상시 주님과과의 친밀감이 결국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 1. 시험의 양면성

인간은 시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어떤 인간도 완전한 인간은 없다. 불완전하다.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그 마음안에 있음을 말한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자고하지 않는다. 자신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겸손의 '태도' 이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는다. 안타까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그 심중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험'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중요한 문제이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 물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다. 즉, 시험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험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도들에게 보이기도 하신다. 시험을 부분적으로 보면 어려운 난제이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이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 또한 깊이 인식해야 한다.

[로마서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2.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모든 인간은 시험에 노출 되어 있다. 모든 시험이(악한 시험, 선한시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다. 시험을 잘 통과한 자가 있다. 그러나 시험 앞에서 주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다. (가룟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울 등)

그러므로 '시험' 을 당하는 인간의 태도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는 인간은 '시험' 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시험 가운데 있으며,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시험 앞에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1) 시험에서 이길 때 :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해야 한다.

(2) 시험앞에서 넘어질 때

시험 앞에 넘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험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다. 성경에서 인간은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한다. 그러나 또한 시험을 딛고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시험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상세히 소개한다. (다윗, 아브라함, 베드로 등, 셀 수 없다) '시험' 이 올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으므로 승리를 하든, 아니면 시험에 넘어진 후에 그 시험을 딛고 일어서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 3. 하나님은 그 시험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시험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

#### 4. 아가서에서 신부가 맞이하는 시험 - 의도가 나타남.

##### (1) 시험을 통해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신다.

[아가서 2: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부를 향한 신랑의 도전을 주목하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부 안에있는 '의도' 를 보고싶어 하신다. 신부는 신랑의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며 망설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를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시험은 의도가 나타나지는 것이다. 훈련은 의도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의도' 를 볼 수 있다. '훈련'은 '몸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시험'은 마음의 의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시험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산을 넘게 하신다.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시는 것이다. 떠남을 통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믿음의 산과 순종의 산이다.

##### (2) 하나님은 성도의 성숙함을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주신다.

인간의 내면안에 있는 '연약함' 의 레벨을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 을 갖는다.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은 드물다.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 앞에 직면하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시험 안에 있어보야 나의 약점이 정확히 노출된다. 무엇이 약한지 알게 된다'

#### 5.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더 강력히 가르치신다. 신앙의 성숙함은 반드시 '시험' 이라는 디딤돌을 통해 나타난다.

사역의 성공과 어떤 일의 성취가 신앙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아가서에 소개된 신부의 여정처럼, 단계적인 여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 6. 하나님은 결국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 신뢰 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7. 시험을 이기는 길 - 주님과의 '친밀함'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넘어졌을 때를 포함해서) 거창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척도임을 명심하라. '친밀감' 이란 하나님이 어떤 상황속에서도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결국 평소에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함의 관계'는, 내가 시험에 처했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된다. 거창한 것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다. 내가 매일하는 말씀묵상 앞에 다시 서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묵묵히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 8.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기도를 해야한다

##### 9. 작은 여우의 위험을 알아야 한다.

포도밭 전체를 망가뜨린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 작은 여우를 통해서 포도밭 전체가 망가져 본 사람은 작은 여우의 힘을 알 것이다. 항상 민감해야 한다.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민감성이 있어야 함을 명심하라.

#### 10.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길 때까지 나아가라